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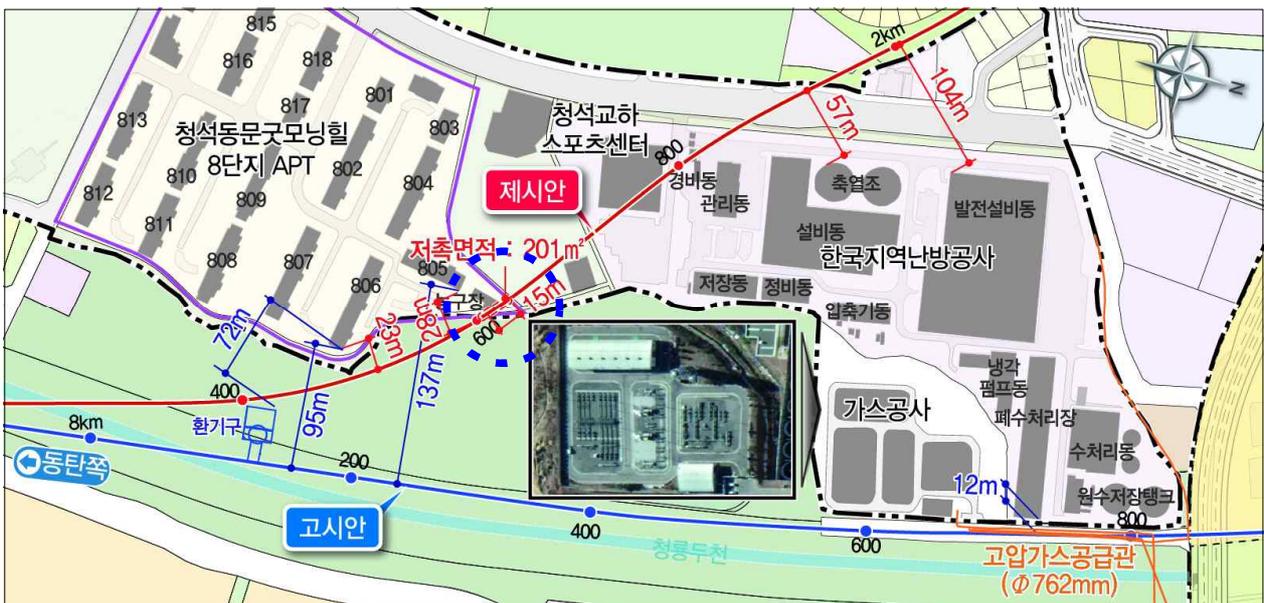
 <b>국토교통부</b>		<b>보도참고자료</b>		
		<b>배포일시</b>	<b>2018. 12. 25(화) / 총 2매(본문2)</b>	
<b>담당부서</b>	민자철도팀	<b>담당자</b>	·팀장 김태형, 사무관 이광민, 주무관 변상엽 ·☎ (044) 201-3982	
<b>보도일시</b>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## GTX-A는 안전에 문제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

□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운영역에서 차량기지까지의 입출고선 중 교하지구 8단지와 열병합발전소 부지를 통과하는 구간은 주택 및 발전소 건물 하부를 관통하는 것이 아닙니다.

- \* 교하지구 8단지는 아파트단지 모서리 농구장 부지 등 통과
- \* 열병합발전소는 스포츠센터 및 경비동 하부 통과

< 해당 구간 현황도 >



○ 또한 해당 구간은 암반층(연암 및 경암)을 통과하므로, 상·하수도, 전력, 통신, 온수관 등 지하 매설물(심도 5m 이내 지표와 가깝게 매설)과는 무관합니다.

- 공사 시 지반침하 및 소음·진동 영향은 극히 미미\*하고, 특히 열병합발전소 부지는 무진동암파쇄공법을 적용하여 진동 영향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으며, 지역난방공사 측과 실시설계부터 긴밀히 협의 하에 진행 중입니다.

\* 지반침하량은 0.1~0.4mm 예측되나, 허용치 25mm의 0.4%~1.6% 수준

\* (소음) 소음원인 작업구가 주택단지와 790m 이격되어 있어 전혀 영향없음 (진동) 공사 시 0.15cm/s, 운영 시 0.02cm/s로 허용치 0.2cm/s 내로 관리

- 국토교통부는 주민 생활 및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사업시행자가 설계 대로 안전하게 시공하도록 철저히 관리·감독하겠습니다.

- 아울러, 용산구 후암동 등 다른 주거지역 통과 구간도 주민생활 영향이 없고, 향후 재건축·재개발 추진 시에도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며, 사업시행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한겨레(전국11면), 12.25, 화) >

- 착공을 앞둔 GTX-A 사업에 대해 주민 등의 노선변경 요구가 빗발침
- 파주시와 교하지구 주민 등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소와 교하 8단지 아파트 하부를 관통하고 있어,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등 주장
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 
민자철도팀 이광민 사무관(☎ 044-201-398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